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6월 2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저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참 평안과 참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 박예성 -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의 부모님은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독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34살이 된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과 사랑을 또한 생각해 보니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깨달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용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사랑이 많은 예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퇴근하여 아내와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손을 맞잡고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복스러운 내일을 꿈꾸며 살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4살 때 은혜와진리교회 과천시성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성가대 대원과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며 교회중심으로

생활을 하셨고, 그런 부모님을 따라 우리도 교회 학교에 출석하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본가가 이사를 하여 한동안 제가 시흥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안양성전 의료선교회에서 봉사하느라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과천시성전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린 후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체력으로 힘든 줄을 모르고 즐겁게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도록 성령께서 저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는 동안 지난 한 주간 사회생활에서 묻은 세상의 때를 씻어내고 성도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혈기왕성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까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큰 꿈을 꾸고 자신감이 충만하여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도록 저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심과 은총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기에 그때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소재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음에도 앞날에 대하여 온통 기대와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철없던 20대 시절에 저의 삶이 크게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3년차가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무슨 일든 자신만만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어지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우울감에 젖어 있을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처음 주중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월요기도회,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 한 주간은 주중에 건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주에 어머니와 함께 월요기도회에 참석하여 설교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도 시간에 저의 교만과 부족함과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제가 교만했습니다. 도와주세요”하고 많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느끼며 하나 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주중예배에 참석하면서 점차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겸손과 인내의 의미를 알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꾸고 바랐던 일들을 하나 둘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편 81:10)는 말씀의 신실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봉사하고 있는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대화하다가 지금처럼 주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다가 그대로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창세기 26장의 ‘이삭’에 관한 이야기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크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것처럼 살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래 들어 부쩍 더 제가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과 자유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당회장 목사님과 부당회장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 말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를 절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누가복음 18:8)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종구 영종로 418 (영종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성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은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4권 (1단원 : 예수님의 비유)

(제3과)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 본문 : 마태복음 13:45-46
- 요절 :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 13:45,46)
- 찬송 : 102장(새찬송가 94장), 415장(새찬송가 292장)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선포하신 이래로 가시는 곳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전심 전력하셨습니다. 이는 죄 가운데서 소망없이 살아가는 못 인생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여러 비유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 13:45,46)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소유해야 하는 값지고 귀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아무런 공로가 없으며,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1.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에 대한 소문을 듣자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가서 그 진주의 진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진주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좋은 진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찼고 언제나 좋은 진주에 대한 소식을 얻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를 올바로 알아본 진주 장사의 높은 안목과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구입한 결단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고 하심으로, 우리도 진주 장사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게 행해야 할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를 누리더라도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일에만 몰두하며 사는 사람은 마치 무가치한 사업에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한 결과 파산하게 된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일과 수고가 결국에는 다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上)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열심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진주 장사는 소문으로 듣던 진주를 자기 눈으로 직접 감정보고 놀라움과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는 오묘한 광택과 크기에서 다른 진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치 뛰어남을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극히 값진 진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처럼,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찾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한 때 탁월한 도덕률과 사상으로 빛을 발하던 성현 군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한줌 흙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가르침 역시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계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보배가 되심을 아는 지식처럼 위대한 지식은 달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올바로 알았으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7~8上)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타락한 인간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실 때라야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알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곧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진주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심히 어리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 그의 모든 소유를 처분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는 그 진주의 가치가 그의 전재산보다도 훨씬 크고 귀중하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오히려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이나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 등을 기쁘게 감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죄사함과 의로움과 영생의 복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곧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일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倍)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마 19:27~29).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은 우리가 바친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분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화가 되시나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져버릴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